

# 해외서 쉬운 프로그램 요청...국내 대중화 '화두'

“오늘날 세계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점 혼탁해 가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고통 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실천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 정신사의 향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조계종 제13대 종정인 진제 스님의 종정 수락 소감문 중 일부다. 간화선 거두인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는 조계종이 진행 중인 간화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진제 스님은 2002년 부산 해운정사에서 중국·일본의 선의 대중장들을 초청해 '국제무차선대법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화선 세계평화대법회를 열기도 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간화선을 논하는 것은 보기도문 일이 아니게 됐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 선불교의 대표수행법인 간화선의 세계화가 전세계적인 수행에 대한 관심 고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간화선 세계화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짚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간화선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011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제3회 외국인수행자포럼에서 외국인 스님들이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

### 실천 프로그램 조연지도 필요

미국 종교간대화 지도자인 탐비 잭 뱌포라드는 “일본과 동남아, 티베트의 불교가 60년대 미국에 들어왔지만 현재 동양의 종교라는 정도의 의미만 남았다. 진짜 불교를 배우고 싶지만 진정한 불교는 없다”며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를 당부했다.

불교가 서양에 전파된 것은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종교회의에서부터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일본 선불교는 동양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으로 각광받게 된다.

이후 불교가 서양에 전파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서양인들이 동양에서 불교를 배워 전하는 것이다.

마르틴 베첼러 명상지도자는 2009년 불학연구소가 진행한 간화선 세계화의 전망 세미나에서 “달라이라마와 탁탄한 스님이 유명해진다는 모두 서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간화선 세계화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간화선 종장들이 한국 내에서의 책임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 많은 제자를 두고 지원을 설립해 자신의 열반 후에도 선불교를 펼치게 한 승산 스님 이후 해외에서 주석하며 간화선을 전하고 있는 수행지도자들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 종학연구소 매년 국제세미나 열어

현재 간화선 세계화는 크게 학자들을 축으로 한 연구 소개와, 해외사찰에서의 일반

인들의 수행으로 나뉜다.

학계에서는 간화선이 전면으로 부각되지 오래다. 2010년 3월 24일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를 기준으로, 1990년 이후의 연구만 해도 단행본 10권 이상, 연구논문 160여 편이 발표됐다. 간화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석사논문은 30여 편으로 박사논문 14편, 관련 소재로 다른 박사논문 10편 등이다. 국제학술대회도 수차례 열렸다. 하지만 학자들의 간화선에 대한 관심은 연구주제에 그치고 있다.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현재 간화선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는 간화선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있을 뿐 실제로 수행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구사회에서 수행법으로 진행되는 간화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조계종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2011년 열린 제2회 간화선 국제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에게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지도 하에 1주일간의 실참 시간을 가졌다.

당시 간화선을 실참한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대 교수는 “간화선 실참은 처음 해본 것”이라며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학연구소는 6월 23~2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회 간화선 국제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은 문경 봉암사와 마곡사, 축서사 등에서 간화선 실

참을 진행한다.

미국 선방에서는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으로 간화선 실참이 도입됐다. 그 때문에 생활 속에서 쉬운 간화선 실천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다.

허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은 “대부분 명상 수행법으로 가정집 거실에서 시작돼 가르치는 방법도 단순 명료하고 점진적이어야 한다”며 “서양에서 승산 스님의 가르침이 효과를 거둔 것은 체계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서양인들에게 맞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믿음보다 학문, 수행적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 서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진우기 한국불교영언어번역연구원 원장의 ‘간화선 관련문헌의 번역현황’을 보면 선불교 관련 서적은 총 20개 서적, 저술은 8개 서적이 번역됐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선원수좌회와 불학연구소에서 간화선 지침서인 《간화선》을 영역해 간화선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한국서 간화선이 대표수행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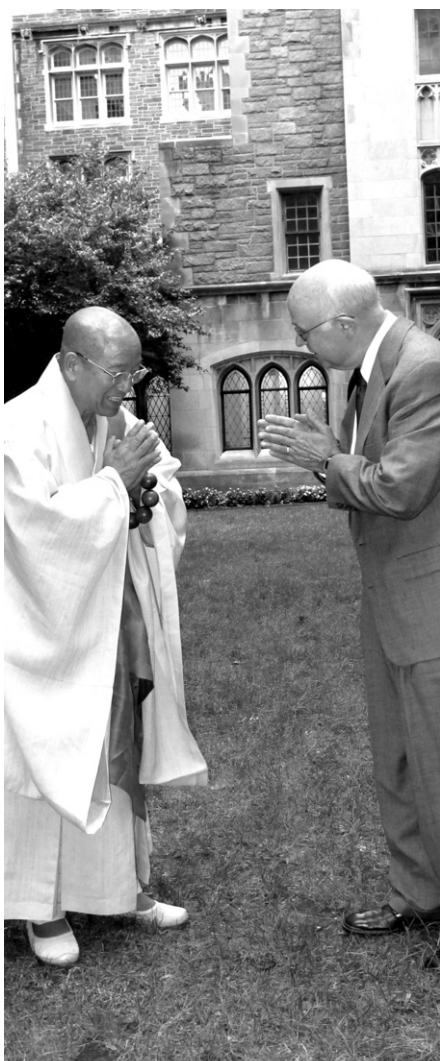
근본적인 문제는 간화선을 대표 수행법으로 주장하는 조계종에서부터 간화선이 대표 수행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 사찰에서는 선수행 보다는 ‘다라니’를 염송하는 정도 기도가 더 성행하고 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재와 49재가 성행하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불자들이나 학자들은 한국불교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을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에서 2011년 7월 간화선에 대해 연구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간화선 체험자들은 체험 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격적 변화를 맞았고, 그에 따라 대인관계 및 불교신앙에 획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간화선 수행법 효과는 분명해 이에 대한 논란은 한국에서의 간화선 대중화가 미흡한 데서 발생한다는 풀이다.

간화선 대중화의 대표적인 곳인 안국선원은 22년간 약 250여 회의 집중수행과정을 진행해 실참한 이들과 2만여 명에 달한다. 안국선원 측은 실참자가 스스로 화두참구의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데 대중화가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간화선 세계화는 한국에서의 대중화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옛날 인도인들에게서부터 지금의 한국인들에게 까지 보편타당하게 적용돼왔다. 지금의 간화선이 한국인과 세계인이 따로 느끼는 가르침이라면 불교사상이 아닌 것이다. 세계인이 누구나 공감하고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간화선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전에 대중에게 구원할 수 있는 사상과 실천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간화선이라면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구촌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지난해 9월 세계적 신학자 폴 니터 교수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스님은 뉴욕에서 첫 간화선 법회를 열어 주목받았다.

“간화선은 서구에서 불교가 그저 동양 종교란 인식을 싹 바꾼 최신 트렌드”

美·유럽 학술연구 활발

수행은 손꼽을 정도

승산 스님 세계적 선사

서구사회서 활동할

지도자 배출이 과제

“정작 한국에서 간화선 위상이 낮은데...”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대한불교법성종



종 정 장허 덕암  
총 무 원 장 능허 혜운

교 육 원 장 설허 만원  
문 화 원 장 락허 혜운  
총무원부원장 도원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재 무 부 장 옥천 류옥순  
총 무 부 장 백봉 성관  
종 무 부 장 보현 유옥임

중앙총회의장 일허 혜승

규 정 원 장 조허 혜운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 교 부 장 보현 조보현

교 육 부 장 일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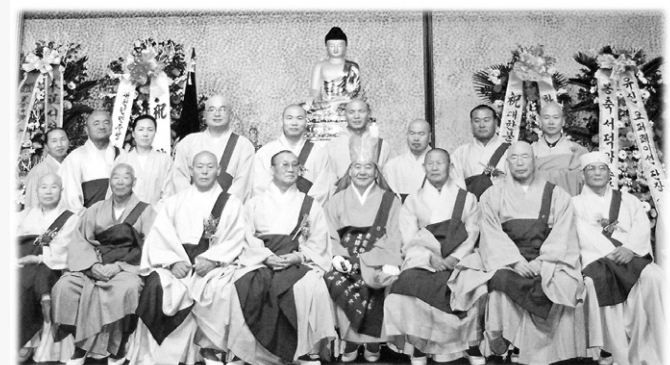
문 화 부 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